

韓경제 쌍두마차 투자 매력 있다

낸드·디램 수요 회복... 高마진 신차 효과 가동률 개선

〈삼성전자〉

〈현대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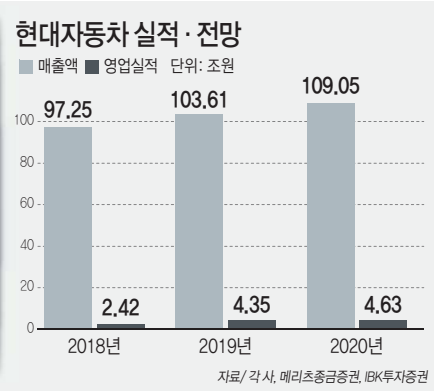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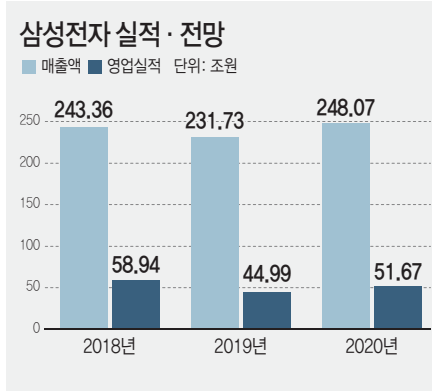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장 선점
팰리세이드 등 주력 신차 판매 호조

‘20년 만의 호황’, ‘세계 1위’.

주식시장과 반도체 업계에서 최근 자주 듣는 단어다.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는 연이어 최대 실적을 내면서 삼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2018년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43조7700억원, 영업이익 58조8900억원을 기록, 창사 이래 최고 성적표를 써냈다.

젓빛이던 전망도 장밋빛으로 바뀌었다. 모바일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서버 업체의 수요 회복으로 긍정적인 관측이 많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 ‘반도체 굴기(掘起)’에도 기술격차는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이 주축하고, 자동차가 중국시장 부진 등으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올해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경제라는 마차를 끌 것을 보인다.

물론 한국 반도체 산업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요 둔화라는 글로벌 공통의 악재에 미·중 무역갈등이란 중



국만의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내친김에 비메모리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다. 연초 이후 지난 30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중 1위가 삼성전자(보통주·722억원)였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박우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부터는 6분기 연속 가격 하락을 겪은 낸드(NAND)의 수요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디램(DRAM) 역시 해당 시기부터 중국 데이터 센터 업체를 중심으로 수요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수요 회복의 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수요 회복과 공급 개선이라는 업황의 방향성은 연초 이후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도 1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 이재운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0조원과 8조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7%, 전 분기보다 15% 줄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49%, 전 분기 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

그는 “올해 분기별로 보면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2분기에도 메모리반도체 실적은 개선되기 힘들다고 판단되지만 갤럭시S10 출시 효과로 IM사업부 영업이익이 2조원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부문의 실적개선이 추가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2분기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재고 소진이 이어지고 3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개

선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도 삼성전자는 기회다.

한국투자증권 최설화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5G 장비 경쟁력은 4G보다 우수하고 칩셋, 단말, 장비 등 핵심 분야 일괄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화웨이 통신장비 매출액의 30~50%가 유럽 시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장에서 화웨이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삼성전자가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2017년 점유율이 미국(63%), 유럽연합(13%), 일본(11%), 중국(4%) 등에 못 미치는 3.4%에 불과하다. 그래서 ‘반쪽짜리 반도체 강국’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0일 경기도 화성캠퍼스(반도체사업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메모리 업황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 아직 메모리에 비해 같길 이 먼 비메모리 사업을 육성하겠다”며 “2030년에는 메모리 1위는 물론 비메모리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2019년 신차 믹스 등 실적 개선 “쇼크.”**

실제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1% 감소한 2조422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97조2516억원으로 0.9%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1조6450억원으로 63.8%나 줄었다.

자동차 판매는 늘었지만 원화 강세와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국의 통화 약세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비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 부진의 탓이었다. 기타 사업부의 연결 대상인 현대모템이 4분기 영업적자(-2129억원)를 기록해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탓이다. 연결 순손익도 적자전환(-1298억원)으로 부진했다. 지분법손익이 적자(-1670억원)를 이어갔고, 계열사 지분도 평가손실(-1900억원)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 정용진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 둔화를 이겨낸다는 고마진 신차 효과와 재고 소진을 통한 가동률 개선 덕분이다. 팰리세이드의 판매 호조가 연내 이어지고, 신형 쏘나타, GV80 등 주력 신차의 흥행이 더해진다면 손익 개선의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지난해 고질적으로 실적 발목을 잡았던 일회성 비용(충당금, 환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3조80000억원(+54.9%) 규모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다.

IBK투자증권도 올해 현대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0조3000억원, 3조4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39.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실적 발표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

〈2018년 연간 매출액〉



4분기 모든 부문서 저조한 실적
반도체 1위 타이틀, 인텔에 뺏겨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호실적에 힘입어 2018년 연간 최대 매출액 경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4분기에는 모든 부문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반도체 1위마저 뺏기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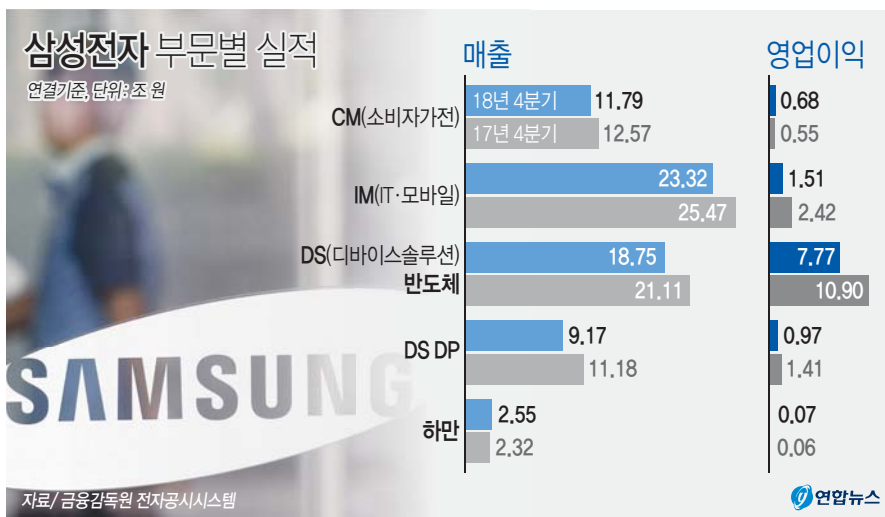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31일 지난해 연간 실적을 공시했다. 매출액은 243조7714억원, 영업이익은 58조8867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75%, 9.77%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44조3449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2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단연 반도체가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 반도체는 매출액 86조2900억원, 영업이익 46조5200억원에 달했다. 전체에서 매출액의 35.4%, 영업이익의 79%를 각각 담당한 것이다.

하만도 삼성전자 인수 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성장세에 동참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8조8400억원으로 24.5% 늘었고, 영업이익은 16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0% 이상 신장했다.

CE부문은 매출액이 42조1100억원으로 5.6% 전년보다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조200억원으로 12% 증가하면서 선방했다. 고부가 제품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타 부문은 저조했다. 특히 IM부문이 매출액 100조6800억원으로 전년(106조6700억원) 대비 5.6%나 줄었다. 영업이익으로는 10조1700억원으로



14%나 감소했다.

디스플레이도 매출액이 전년비 5.8% 줄어든 8조8400억원, 영업이익은 2조6200억원으로 51%나 쪼그라들었다.

4분기는 예상보다 나빴다. 매출액의 경우 IM부문은 23조3200억원, 디스플레이 부문은 9조1700억원으로 각각 8.4%, 18%나 줄었다. 영업이익도 IM이 37.6%, 디스플레이가 30.3% 축소됐다.

이는 휴대폰 시장 침체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LCD 경쟁 심화와 올레드 패널 수요 감소도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반도체는 매출액 18조7500억원, 영업이익 7조7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2%, 28.7% 급락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매출액 187억 달러(한화 약 21조원)를 거둔 인텔에 반도체 업계 1위 타이틀을 뺏겼다. 2017년 2분기 이후 7분기만이다.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른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이 원인이었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

화되면서 AP 수요도 줄었고,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에서도 저조했다.

CE부문도 4분기에는 전년과 대비 매출액이 10.2% 떨어진 59조2700억원을 기록했다. 단 영업이익에선 6800억원으로 전년비 23.6% 더 많이 벌었다.

삼성전자는 연말 성수기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QLED TV가 전년동기보다 3배 가량 많이 팔렸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메모리와 올레드 판매 둔화 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갤럭시 S10 출시에 따른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가 기대됐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제품 품격화와 5G 기술 차별화, 폴더블 스마트폰과 마이크로LED 등 혁신 제품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를 향상시켜 기기간 연결 확산 및 관련 서비스 확대에 언급됐다. 생활가전 시장 확대에 따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가전제품 확대와 더불어 시스템에어컨 등 B2B 사업 강화도 예정했다. /김재용 기자 juk@

또 LG전자 발목잡은 휴대폰



MC부문 타격 커... 영업이익 79.4% ↓
가전 프리미엄 강화로 수익성 확보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이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전장사업 수익 개선 등 미래 먹거리 성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액 15조7723억원에 영업이익 757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7% 줄었고, 전기보다는 2.2% 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9.4%, 전기보다는 무려 89.9%나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C)에서 타격이 컸다. 매출액이 1조7082억원, 영업손실은 3223억원에 달했다. 다른 사업부문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다.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판매량이 줄어든 데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악영향을 끼쳤다.

전장사업에서도 적자 행진은 이어졌다. 매출이 1조3988억원, 영업손실이 274억원이었다. 단 전년과 전분기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 먹거리로서의 지위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신규 프로젝트 양산과 ZKW 실적 반영으로 매출액이 전년비 71% 상승했다.

가전부문에서는 관망은 실적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H&A 사업분부는 매출액 4조3279억원으로, 4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영업이익도 10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8% 더 벌여

들었다. 신흥시장이 위기를 겪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선전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원가 절감 등으로 이익율도 늘었다.

HE 사업분부도 매출액 4조5572억원에 영업이익 2091억원으로 선방했다. 신흥시장 경기 침체와 마케팅 비용 증가 및 중남미 시장 환율 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하락폭이 크진 않았다.

LG전자는 올해에도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스마트폰 시장은 수요감소와 판매 경쟁 심화도 예상됐다. 완성차 업체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부품 시장 역시 정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우선 LG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프리미엄 전략 강화를 공표했다. LG시그니처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등 초프리미엄 브랜드를 주요 매출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올레드TV와 UHD TV 등 프리미엄 TV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시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지속적인 원가 개선으로 수익구조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사니지 시장 역시 프리미엄 제품 성장을 예상하며, B2B에서 올레드와 LED 사이니지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태양광 패널 시장도 수요 회복이 점쳐짐에 따라 시장 다변화를 통한 매출과 수익성 확보를 기대했다.

MC 사업분부는 새로 열리는 5G 시장에서 완성도 높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기에 출시키로 했다. 스마트폰이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로 떠오르는 만큼, 선제적인 준비로 새로운 폼팩터 등을 앞세운다는 전략도 세웠다. /김재용 기자